

일주 문



고령자 위한 보살행 주제 법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은 2월 10일 서울 조계사 특별일요법회에 참석해 '고령자를 위한 보살행'을 주제로 법문한다.



강릉불교환경연대 대표 취임
강릉 현덕사 주지 현승 스님은 1월 26일 강릉여성회관에서 열린 강릉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에서 강릉불교환경연대 대표에 취임했다.



'불교사회복지학' 발간심포지움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원장은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회복지학 지평서' 발간 심포지움을 연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2월 2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여성불자 108인 선정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추대
前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원회 회장은 1월 26일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 교육센터에서 열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중앙노인전문요양원 신년하례식
서울 중앙노인전문요양원 고정숙 원장은 2월 11일 오후 2시 요양원 시설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신년하례식을 진행한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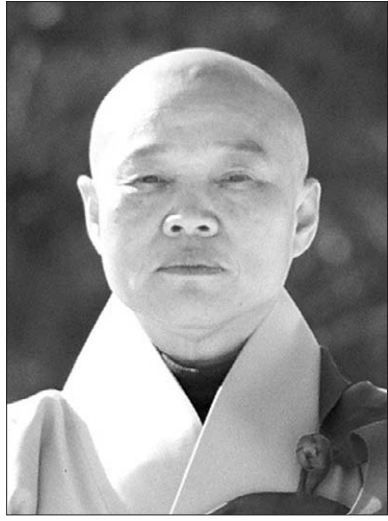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21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총무원 및 중앙전문종무기구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총무조정실장 백은 스님(前 교무관리실장) ▲기획부장 법경 스님(前 교임부장) (임명)▲총정예경실장 상허 스님 ▲중앙시정원 부원장 운담 스님 ▲중앙시정위원 월담 법연 경주 스님 ▲중앙초심원장 청봉 스님 ▲교무기획실장 동우 스님 ▲교임부장 여초 스님 ▲기획국장 효성 스님 ▲재무국장 진성 스님 ▲사회국장 법도 스님 ▲교육국장 성우 스님 ▲문화국장 보원 스님 ▲교임국장 세왕 전범사 (중앙전문위원회)▲교육위원장 수암 스님 ▲부위원장 도안 스님 ▲중앙사격조정위원장 운산 스님 ▲총책기획위원장 보용 스님 ▲법규위원장 혜공 스님 ▲위원 영우·혜명·서암·정담 스님 ▲부총결사위원장 보경 스님 ▲명인심사위원 장 환우 스님 (중앙전문종무기구)▲중앙포교원장 대은 스님 ▲연구실장 송월 스님 ▲포교국장 범훈 스님 ▲중앙홍보원 홍보국장 해철 스님 ▲중앙복지원 부원장 성파 스님 (전통불교문예원)▲원장 구해 스님 ▲부원장 일은 스님 ▲국제불교문화원장법암 스님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해원 스님 ▲문과대학장 박윤희 ▲법과대학장 방희선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박정국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이전센터장 이종태 <경주캠퍼스> ▲에너지환경대학장 이계영 ▲인문과학대학 부학장 구본철 ▲산학연컨소시움센터소장 장익현 ▲학생상담센터장 김인홍

“동학학림 이뤄 새로운 경학의 장 펼칠 터”

동학사 승가대학장 취임한 해주 스님



“교수와 강주소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해주

스님(사진)이 현직 교수로는 처음 승가대학 학장(장주)이 됐다. 세간 사람들은 현직 교수가 강연 강주를 겸한다는 것이 화제지만 스님은 “본래 자리에 돌아온 듯 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운문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사집 과정을 운문사에서 마쳤지만, 동학사에서 사교와 대교반을 마쳤다. 동학사는 스님의 제2의 고향인 셈이다. 이때가 1977년. 이후 서울로 올라온 스님은 1978년 동국대 입학 후 학생과 강사를 지냈다. 1990년 교수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30여년을 동국대에 적을 썼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경국사 등에서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문하에서 수학하며 전강 받았다. 해주 스님이 전해 받은 지관 스님의 강맥은 박한영 스님에게서 운허 스님을 잇는 강맥이다.

강연 교육에 대해 스님은 “단순히 경전을 연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올바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전통 강연 교육을 계승하면서 대학에서 익혔던 학문 연구방법을 보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아끼지 않겠다는 스님은 첫 번째로 경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조 과목 개설 의지를 밝혔다. 전통강원 개혁과 동시에 ‘(가칭)동학학림’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평소 승가대와 동국대 등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스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부도량’이 없던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라고 말했다. 스님이 추진 중인 동학학림은 이미 시중 스님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30여년 만에 돌아오니 학인시절 소중히 느끼지 못했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난다”는 스님은 후배이자 제자인 학인들에게 “대중생활은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화엄의 선재종자, 보현의 문수동자처럼 조발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종섭 기자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신년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회장 정일태)는 1월 27일 적지불교대학 황룡사에서 회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2008년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황룡사 주지 도일 스님은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불자는 지비가 깔려 있는 불자가 되어 참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방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범철 대구지사장

원효종 경북 남교구총무원 현판식



대한불교원효종 경북남교구 총무원(원장 영은) 현판식이 1월 30일 경주 북원사 총무원에서 봉행됐다. 총무원 부원장 운오 스님, 울산 총무원장 금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의 경과보고, 총무원장 축사, 교구국장 임명장 수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은 스님은 “원효종도들의 화합된 애정으로 종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사의 일심, 무애, 화쟁 정신을 받들고 수행정진하자”고 말했다. (054)745-3646 손범철 대구지사장

지공당 정공대종사 원적

조계종 원로 지공당 정공대종사가 1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세 나이 88세, 법납 58세.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월 30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전리 원통사에서 봉행됐다.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난 정공 스님(사진)은 7세 때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18세에 염불삼매를 경험했다. 성인이 된 후 선지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스님은 29세에 해인사에서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田岡永信, 1898-1974)를 만나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하게 된다. 곡성 태안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전강 선사에게 ‘이뻏고’ ‘판치생모(飯齒生毛)’ 화두를 받고 정진했다. 전강 선사에게 ‘정공은 오후사(悟後事)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강 선사 열반 후인 1975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정공 스님을 장간했으며, 30여 년간 극락사에 주석해 왔다. 상좌로는 우담 성은 성월 진각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인 성관 스님 등 30여명이 있다. (063)323-2100 여수령 기자

전법회관 건립기금·태안성금 전달

조계종중신회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월 30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에 전법회관 건립기금 5억원과 태안기름유출피해 성금 280만원을 전달했다.



김의정 회장은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법회관 건립기금과 증서와 태안 기름유출 피해 1차 성금을 전달했다. 전법회관은 지난해 9월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인사

최명준 前 진흥원 사무국장, 불교방송 전무

(재)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2월 1일자로 최명준 前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을 전무로 임명했다. 최명준 전무(61·사진)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 군종법사로 임관해 제1군 사령부 군승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불교환경연대 감사를 거쳐 월간 <불교와 문화> 편집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를 현재까지 맡고 있다. 최명준 전무는 1997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으로서 불교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앞장서왔다. 김주영 기자

청주청원불교연·청주신행단체협신년교례회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와 청주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상환)는 1월 29일 청주 선택체육관에서 무자년 신년교례회를 봉행했다. 대불청 총목사주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례회에는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원해 스님, 명정사 주지 화산 스님, 김현배 총목사도회장,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각의 스님은 “늘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라”고 당부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주)에이치비앤씨)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연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예약전화 041)554-8080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7년 3월 15일

무형문화재 제9호 해룡 큰스님의 수제자이자 통도소리 어장을 맡고있는 청봉스님은 4세대 통도사 통도소리 어장이신 일호스님의 문하에 입문. 1999년부터~2001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양산 통도사 상노전 직무를 역임하였고 통도사소리 보유자로서 부산불교교육대학에도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9호인 해룡 큰스님께 특별전수를 받아 수제자가 되어서 통도사 소리맥으로 작법무와 징,강쇠,북,호적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다.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4시 회비 월 10만원 (복음기, 필기구준비)

- ▶ 기초반 안채비 ~ 불교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성,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 ▶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 ▶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회영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영문))
- ▶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리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회비 월 10만원
- ▶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 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대평성))
- ◇ 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